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50p, 중고선가치수 181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50p(+1p, WoW), 중고선가치수는 181p(+9p, WoW)를 기록함. 지난주, 삼성중공업이 174,000CBM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3년말, 2024년 1분기임. (Clarksons)

Qatar Petroleum orders four LNG carriers at Hudong-Zhonghua in deal worth in excess of \$769m

중국 Hudong-Zhonghua Shipbuilding이 Qatar Petroleum으로부터 174,000CBM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함. 계약규모는 7.69억달러이며 2024-2025년 인도될 예정임. Hudong-Zhonghua는 카타르 프로젝트 전체 150척 발주계획 중 첫번째 계약건으로 보도됨. (Tradewinds)

Sovcomflot and NYK ink order for up to six LNG carriers for Novatek

러시아 Sovcomflot-일본 NYK는 삼성중공업에 LNG운반선 6척을 발주함. 174,000CBM급이며 옵션분은 2척임. 삼성중공업은 8.1억달러 규모 계약으로 발표함. (Tradewinds)

Jiangnan Shipyard scores \$170m car carrier order from SAIC Anji

중국 Jiangnan Shipyard는 7,600CEU급 PCTC 2척을 수주함. 척당 8,500만달러로 보도됨. 발주처가 납기, 건조 이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입찰에 참가한 조선소는 Jiangnan과 CMJL 밖에 없었음. (Tradewinds)

Coca-Cola switches to bulk carriers in face of sold-out containerships

Coca-Cola는 극심한 항만적체와 높은 운임으로 과거 이용하던 2,800TEU급 컨테이너선 대신 벌크선 3척을 대선함. (Tradewinds)

중국 이어 인도도 전력난... "석탄 재고, 나홀치 남았다"

인도 전력부는 1일 기준 자국 135개 화력발전소의 평균 석탄 재고량이 8월초 13일치에서 줄어든 나홀치라고 발표함. 인도의 8~9월 전력소비량은 COVID-19 이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는데, 최근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급증한 수요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됨. 중국 전력난 등으로 석탄 수입 가격이 올라 인도 발전사들은 최근 몇 달간 수입량을 오히려 줄임. (조선Biz)